

[윤리와 사상]

1	①	2	③	3	②	4	⑤	5	①
6	④	7	④	8	③	9	②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④

1.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대화의 고대 동양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효제와 충서를 실천하여 타고난 본성인 인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2. 케인스와 하이예크의 사상 비교

같은 케인스이고 을은 하이예크이다.

ㄴ 케인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ㄷ 하이예크는 정부의 역할은 경쟁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토대 마련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노자의 '도' 사상

노자는 만물의 본질을 도라고 보고 도는 하늘과 땅의 존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무위를 통한 사회 혼란의 수습을 강조하였다.

4. 모어의 유토피아

강연자는 모어이다. 그는 유토피아라는 이상사회를 제시하였는데 일부 특수한 계층을 제외한 사람들이 노동에 나섬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켜 필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하고 여가에는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삶을 꿈꾸었다.

5. 플라톤의 정의

제시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덕성의 유무에 따른 직위의 분배를 주장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소질을 발휘한다 하여도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는 없다.

6. 주자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같은 주자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ㄱ 둘의 공통된 입장이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신유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살 가능성을 가진다고 본다.

ㄷ 주자의 입장으로 옳다. 성에는 4덕이 네제되어 있다.

ㄹ 왕수인의 격물은 치양지를 말하므로 적절함 선지이다.

7. 에피쿠로스학파와 벤담의 사상 비교

같은 에피쿠로스학파, 을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의 역설을 인지하고 고통의 부재 외에는 쾌락의

증대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쾌락의 개인적 영역만을 고려한다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의 극대화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구분이 이루어진다.

#### 8. 평화에 대한 칸트와 갈통의 주장 비교

갑은 칸트이고 을은 갈통이다.

ㄷ. 칸트는 폭력은 이성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갈통은 폭력의 재생산으로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 9.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ㄱ. 맹자의 왕도 사상을 말한다.

ㄷ. 천인분이를 주장하는 순자의 사상이다. 순자는 인간의 도덕성과 하늘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 10. 스토아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

갑은 스토아사상이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사상의 초기 교리의 체계화에 기여하였으며 스토아사상은 세계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우주이성에 따르는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 11. 현대 서양 철학의 비교

갑은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이고 을은 실용주의자 듀이이다.

갑, 을은 모두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인 방법,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윤리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듀이도 진리나 윤리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 12. 홉스와 마르크스, 루소의 사상 비교

갑은 홉스이고 을은 마르크스, 병은 루소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를 누린다고 가정하지만, 홉스는 공통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를 가정한다.

#### 13.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비교

갑은 중세 사상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신을 초월적존재로 인식한 아퀴나스와 범신적 입장을 보이는 스피노자는 공통적으로 자기보존의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14. 4단 7정 논쟁 이해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의 입장이다.

ㄷ. 이귀기천의 입장을 위하는 이황의 입장이다.

ㄹ.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만물과 현실에서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도 섞일 수도 없다고 보았다.

15. 데이비드 흄 사상의 이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공감 능력을 도덕 판단과 행위의 원리로 삼았으며 이성만 도덕 판단과 행위라는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 정약용의 사상

정약용은 단시설을 주장하였다. 4단은 4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17. 칸트의 사상 이해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인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가 되려면 인간이 개인적인 행위의 원리인 준칙을 수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보편화 정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18. 대승불교 공사상의 이해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는 용수이다. 공사상에서는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공 아님 것이 없다고 주장하여 만물의 고정된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9.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이해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지덕복합일설을 바탕으로 진리가 곧 덕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전제임을 강조하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앎뿐만 아니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 위정척사와 동학 사상의 비교

갑은 위정척사사상의 입장이고 을은 동학 사상의 주장이다. 만민평등의 입장을 강조한 것은 동학이고, 후천개벽을 주장한 것도 동학의 주장이다. 끝으로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은 위정척사의 주장이므로 ㉠이 정답이다.